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일본의 경제 회복, 수출과 내수 부진, 한국 WTO 개도국 지위 박탈 등등.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그런데 초당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여야는 서로를 향해 축창을 겨누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야당은 정부가 관재 민족주의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행복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 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본 정부의 경제 회복 조 치를 강력 비판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을 확대하며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하 나, 이것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다. 정 부가 고도의 외교력을 회복하고 협치의

용기 없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나라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최근 방문한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민 주주의 정신을 지행하는 힘과 위대한 정 치 지도자의 삶을 만났다. 1620년 메이 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 온 청교도들은 보스턴 근 처 플리머스에 도착하기 전 배 안에서 41명이 협약을 체결했다.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의 시민 정치 체제를 만들고 필요한 법률과 공직을 제 정하여 이에 복종한다는 것을 서명했다. 중요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 수결의 원칙을 따를 것을 약속했다. 이 런 메이플라워 협약이 바탕을 둔 다수결 의 원칙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행하는 힘 이 되었다. 한국 의회 민주주의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법률 제·개정 절차를 관통하 는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선진 화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5분의 3 이상 법칙을 준수한다. 이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선거법 개정과 사법개혁을 연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국 파행의 원인이 되었다. 이제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한 국

회 선진화법은 개정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해야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성숙해진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신만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도그마 에 빠지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여당은 야당을 친일이라고 매도하고 야당은 여당을 종북이라고 낙인찍으며 진영의 논리에 빠지면 극단과 배제의 정 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민주주의 는 무너지고 '민주주의 없는 민주화'라 는 기형적인 상태가 지속된다. 흑백논리 가 아니라 흑과 백이 섞이면서 만들어지 는 화색이 아름다워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법이다.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 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용기에서 나 온다. 보스턴에는 미국 제35대 대통령이었 던 존 F. 케네디 도서관 및 박물관이 있 다. 그곳은 케네디 대통령의 삶과 리더십 을 보여주는 각종 상징적인 유산, 그리고 동서 냉전시대에 맞섰던 그의 용기와 도 전 정신이 깊이 배어 있다. 케네디는 '용 기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대중들의 비난과 반발을 감수했 던 무명의 8명의 정치인을 소개했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과 동료들 로부터 버림받고 언론으로부터도 돌팔 매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케네디는 지금의 미국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세계 최강국 을 건설하는 데 이들의 용기가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용 기에 대한 이런 믿음 속에서 '뉴프런티어 공약'을 실천하고 냉전시대 최악의 핵무 기 사태였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과감 하게 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을 지 지하는 세력의 눈치만 보고, 황교안 대 표와 한국당도 태극기 세력과 친박에게 만 눈높이를 맞추면 용기 없는 3류 정치 가 된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하고 야당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잘못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몰락한 정치가 복원되고 대결 정치가 사라진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들로부터 미움 받을 용기를 보여 주고 상대방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 의가 살고 경제 위기도 극복된다.

종교칼럼

시간의 가치와 게임



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필자는 인생을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살 아가는 방법을 하나 제안해 보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대우와 거대한 분노와 상처가 크다. 더러는 공평하지 못한 개인적인 태생과 환경에 대해서도 탄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렇게 불공평의 시대에 공평한 것이 하나 있다면 '시간'이라는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훌륭한 선물을 주셨다. '시간'이라는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남녀 노소 지구상의 존재하는 누구에게든지 하 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는 사실이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잠재력과 가능성 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자원이다. 그리고 이 원자재를 활용하여 '삶'이라는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는 각자 의 몫이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행복한 삶 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면 흑흑한 시련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 일에 묶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인간관계를 위 해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 다. 또한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면 시간에 쫓기게 되고 서두르기 때 문에 각종 실수와 사고를 연발하게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육체 건강이나 정 신 건강에 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 무료 하게 보내면서 시간 뿐 아니라 물질과 정 력도 낭비하게 된다. 최근 교회 내 소그룹 강의를 하면서 시 간 가치의 반대 단어들을 모아서 다시 한 단어로 정리해 보니 '게으름'이라는 단 어가 도출되었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철저한 시간의 가치를 지닌 사람 을 만나 보기는 힘들다. 게으름이 시작되 면 우리의 지성에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정신적 작용들이 점차 사라진다.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적인 것에서 진 전이 없는 삶이다. 그들은 도전이 없는 삶을 되풀이하여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 고 매일 침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회 화적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문 짝이 돌찌꾸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 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잠26:14) 돌찌꾸(헛지)를 따라 문이 돌듯이 침상

을 중심으로 나타내게 사는 사람들은 자 기 안에 있는 게으름과 태만이 시키는 대 로 살아간다. 성경 말씀은 그냥 습관으로 반복적인 일상을 바쁘게 살아갈 뿐 변화 없는 삶을 게으름의 범주에 넣는다. 규칙적으로 일 상적인 삶을 고단하게 되풀이 하는 습관 은 우리의 영혼을 고사시키는 일이다. 그 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 다. 우리는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자신의 삶을 재편 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경영하는 것이 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신의 삶을 재정돈하여 환 경을 바꿔야 한다. 환경이 좋게 변할 때 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환경은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극복하고 싸워 이겨야 할 상대 이다. 잘 점검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영 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간 의 가치를 무시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이다. 시간은 신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쫓 기거나 낭비하는 대상이 아니다. 귀한 선 물을 받은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기고

코리언 로드, 서남해안 77번 국도의 꿈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서남해안 77번 국도가 동해안 7번 국 도를 만난다. 파주에서 목포, 여수, 부산 을 지나 고성까지 굽이굽이 해안을 따라 간다. 총 2794km에 전남 구간만 1099km 다. 바다를 품은 한국인의 길(Korean Road), KR 777의 출발이다. 앞으로 신 의주를 거쳐 요동(랴오둥), 함흥을 거쳐 연해주(프리모르스키)까지 연결할 꿈을 갖고 있다. 2007년 부산에서 출발한 아 시안하이웨이(AH)가 흑해와 지중해로 가는 길이라면, KR 777은 숨겨진 연안 을 소통시키는 동행로가 된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풍광을 느끼고 생 각 나누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시도다.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태아의 신비와 포 근함으로 일상에 찌든 현대인의 몸과 마 음을 치유케 하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을 동반한 아름다운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매사에 철저하고 어려운 일도 흥이 나게 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 철홍 청장의 생각이다. KR 777이 미국 키웨스트 해상 교량과 해저 터널 42개소 37km에 견주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신안, 진도, 완도-고 흥, 여수 금오도 등 섬과 해안을 더 연결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민의 염원을 담아 최근 '2030 전남 기반 시설 계획'을 수립 했다. 115개소에 15조 원 규모다. 현재 56개소는 공용 중이고, 17개소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42개소에 9조 원 이 더 들어가야 한다. 낙도, 낙후, 지역 차별이란 말을 없애 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3050 클럽' 국가의 경제 규모에 맞는 투 자를 해야 한다. 경제성만 따지지 말자는 거다. 인접 일본이 그랬다. 국민소득 2000달러에 불과한 1960년대 초부터 이 미 북해도로 가는 해저 터널 53.8km를 착 수했다. 청함(세이칸) 터널 개통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명석해협(아카시)을 건너는 등 섬을 잇는 찾길 또한 대부분 완성했다. 작은 것도 고루 쓰는 그들의 국토 활용 정책이다.

도로는 우마차를 이용하면서부터 빠 르게 진화했다. 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정복자의 통치로요, 상인의 교 역로, 신문물의 전달로였다. 오늘날까 지 유럽 주요 도시의 근간이 되었으며, 독일 남부에서 '로맨틱 가도'로 이름을 바꾸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 다. 우리는 어땠는가? 육로보다는 해로였다. 그 시절에 청해진 장보고와 압해 수 달장군 능창이 중국과 왜를 잇는 해상 왕 국을 이룩하기도 했지만, 조선이 개국되 면서 차단되고 만다. '죄를 짓고 섬으로 숨어 버리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 유였다. 공도 정책은 확대되었고 바다와 섬을 전시한 '우물 안 개구리' 정책은 왜 란과 호란, 급기야 망국의 길로 이어졌 다. 우리의 도로는 일제 강점기에 수탈 목적의 신작로부터 시작됐다. 구불구불 지방 도로는 당시 저항의 상징이지만, 오 늘날엔 보행로도 없는 굴곡 위험 도로가 되고 말았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 정부에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 했다. 내년부터 4년간 32조 원을 투입한 다. 우리 몸의 핏줄과 같은 도로가 막히

고 끊기면 먹고 사는 경제 활동 또한 끝 나기 때문이다. 서남해안을 잇는 국도 77호선은 2001년 DJ정부 때 지정됐 다. 파주-부산까지 1254km, 전남 구간 만 535km다. 바다가 들고 난 산과 들에 선을 긋고 정부 관계자를 찾아 다녔던 기억이 아련하다. '이게 되겠어요?'라 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20여 년이 흘렀 다. 신안 섬으로 가는 7.2km 바다 위 찾길, 천사(1004) 대교는 그렇게 시작됐다. 올 연말이면 영광-무안 칠산대교와 고흥 ~여수를 연결하는 네 개 교량도 개통한 다. 그 시절 국도 노선 조정 담당자였던, 이용욱 도로정책과장을 7월 26일 국토 교통부 장관 현장 투어에서 만났다. '이 선은 미쳤죠?' 당시 그가 들어야 했던 고 뇌와 보람이 섞인 말이다. 그의 생각과 손이 없었던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끝없 는 감사를 드리며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 지원을 위한 남도의 섬 연결 계획이 그의 머리에서 다시 한 번 잔란하게 피어 나길 기대한다. '전남은 이제 동력을 얻 었어요?' 김현미 장관의 이목만목(二目 萬目)을 생각하는 눈빛이 새롭다. 세상 어디에 이만한 곳이 있을까?

社說

일본 '수출 규제' 광주·전남 피해 최소화해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기)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전남연구원 이 엮그제 내놓은 논문 '일본의 수출 규 제 확대 우려와 지역 경제 시사점'에 따 르면 광주에서는 총생산액 419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기 부문에서 303억 원의 생산 감 소가 유발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 된다. 이밖에 기계·장비 업종 49억 원, 운 송장비 44억 원, 금속 8억 원 등의 손으 로 생산 감소치가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총생산액 777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로는 화학제품이 636억 원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으며 기계 및 장비 업종이 9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출이 통제된다. 그동안 일본 시장에서 부품을 조달해 온 광 주·전남 지역 기계류 및 금형 업종은 악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일본이 한국과 정치적 갈등을 경제 분 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도한 조치다. 하지만 일본 의 경제 회복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지 역 경제계와 자치단체 등은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및 지역 경제계는 기업지원조직, 산·학·연 네트워크, 통상 전문가 등으로 전방위적인 전담 팀을 만들어 비상 상황 에 대비해야 한다. 차체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위기 대 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 진해야 할 것이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쉼터' 이름이 무색하다

도심 속 '무더위 쉼터'가 관리 부실로 '점통 쉼터'로 전락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폭염을 피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광주 지역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지하철역 등 일부 무더위 쉼터는 냉 방기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엮그제 광주일보 취재진은 노인들이 자주 찾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온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 섭씨 30 도 이상을 기록했다. 오후 2시께 광주에 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금남로 지하상 가 내 '만남의 광장'과 도시철도 금남로 4기역 내 '무더위 쉼터'의 온도는 각각 30.6도와 30.7도를 기록했다. 평소 문화 행사가 자주 열리는 도시철도 농성역과 공영장이 있는 상무역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다. 이곳의 오후 2~3시 사이 온도는 농성역이 30.2도, 상무역은 30.5도, 평동 역은 32.1도에 달했다. 특히 노래 공연이 열린 농성역은 거의 점통 수준이었다. 냉방도 되지 않는 곳에

어르신들 200여 명이 모여 들면서 체감 온도는 35도에 육박했다. 올해 광주 시민 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쉼터를 늘리겠다고 장담 한 광주시의 폭염 대책이 무색해지는 대 목이다. 문제는 지자체와 도시철도공사가 예산 타령만 늘어놓을 뿐 뾰족한 대안을 내놓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르신들이 모 이는 장소가 출입구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니 외부 온도의 영향을 받는 데다 지하 상가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에어 커튼이나 유리문을 설치하기에 예산 부 담이 많다는 것이다. 매년 혹서기마다 되 풀이 되는 현상인데도 예산 타령으로 일 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은 이제라도 폭염 취약지역의 힘겨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보안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폭염에 대비 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애완동물 전성시대이다. 고양이와 개 는 이미 노년 인생들의 자식을 밀어내고 반려동물의 자리를 꿰찼다. 아이들이 강아지를 기르자고 졸라도 쫓겨 들어주지 않았다. 굳이 하나를 기르 라면 고양이보다 개를 택하겠지만 그마 저 마뜩찮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의 성화에 못 이겨 말티즈 강아지를 서너 달 기를 적은 있다. 꼬집어 말할 수는 없 지만 고양이는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 들 어 유난히 멀리했다. 퇴근길 주차장 주변에 서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게 먹이를 주는 장면은 가끔 목격한다. 고양이 를 예뻐하는 마음이야 이해한다. 하지만 일부러 먹이를 챙겨서 길고양이들을 부 르는 모습을 보면, 왠지 불쾌감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입장에서 가던 길을 우회해야 하는 번거 로움도 감내해야 한다. 한번 먹이를 주면 그 주변에는 고양이개 떼로 몰려든다. 한 쪽만 공터에서 먹이를 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렇게 고양이를 야간다면 서 너 마리 집에 데려가 기르면 될 일이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 애완동물 때문에 거

이, 수시로 방송을 해 도 마안한 기색 한 번 없 이 개를 안고 다니는 모 습을 보면 여간 알피운 게 아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간단한 진 단과 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도체제 무슨 심사인지 알 수 없다. 최근 군산에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길 고양이가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세상에는 동물을 사랑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동물을 싫어하는 사 람들도 있고 그것 또한 자유일 것이다. 하 지만 어떤 경우라도 살아 있는 동물을 해 치는 행위는 범죄임에 틀림없다. /재희총 사회부장 chae@

**페티켓**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도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체 육 부 220-0633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